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김주남(베드로) 신부 미사 집전

이윽희 루카 신부님의 성지순례(2/2-2/13)로 오늘 주일 미사는 김주남(베드로, 전주교구)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됩니다.

2월 청년미사 안내

2026년 상반기 청년피정으로 2월 청년미사는 없습니다.

설 합동 위령 미사 신청(오늘까지)

*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사: 2월 15일(주일), 09시 15분

신청: 미사 후 산 다미아노홀(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연령회 월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김영빈(루시아) 자매님을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연도신청: 646. 369. 3666(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2월 18일 '재의 수요일'(한국어 미사)

장소: Lower Church 시간: 오후 6시 45분

* 미사 중 재를 엮는 예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날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685-7788 봉사자 원헤미 엘리사벳

2026년 견진성사반 안내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 성인

(*타 성당 교적 신자의 경우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교육기간: 2/22-3/29

시간: 1:00 PM~ (장소: 추후 공지)

신청: 646-832-7397 (Sr. 마리루시)

2026 전 신자 SNS 성경공동통독(요한/사도행전)

2025년 대림시기 <공관복음(마르코, 마태오, 루카)> 통독에 이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공동통독을 시작합니다. 주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영적 준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대상: 2/8-3/28, 전 신자

방법: 각자 매일 1장씩 정해진 분량 읽기, 언제든지 참여 가능(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진도가 나간 분량을 개인적으로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참여방법: 1. QR 스캔 또는

<https://open.kakao.com/o/g2b2QQUH>

2. 코드 10001 입력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2026년 상반기 청년피정

날짜: 2/14(토) - 2/15(주일) (1박 2일)

참가비: \$230

피정장소: Graymoor Friars of the Atonement

신청: 929-660-4456 (청년분과장 진현중 빈첸시오)

미 동북부 제 68차 기초성령세미나

일시: 2/19(목) 5:00PM ~ 2/22(주일) 5:00PM

장소: 뉴튼 수도원, 297 US-206, Newton, NJ, 07860

참가비: \$390(식사 및 숙박 포함), 교재비: \$15

신청마감: 2/15(주일)

신청: 917-929-4242 (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2026 미 동북부 ME: Family Bowling

일시: 3/1(주일) 2:30PM

장소: Bowler City

(201-343-3545)

85 Midtown Bridge Approach, Hackensack, NJ

참가비: \$50 부부

(18세 미만 자녀 무료)

신청: 646-322-3484

(장혜윤 크리스티나)

* 행사 후 간단한 식사제공



* 공지: 2026년 재정분과 자문위원 임명
김종선(비비안나) 김미화(마리크레어) 유승진(프란치스코)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복자 김정득 베드로 (? - 1801)



김정득은 충청도 홍주의 대흥 고을에서 태어나 친척 김광옥 안드레아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이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김정득은 김 안드레아와 함께 교회 서적과 성물을 지니고 공주 무성산에 숨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탓에 쉽게 발각되었다. 이들은 각각 홍주와 예산으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청주로 이송되었고 한양에까지 보내졌다. 그 과정에서 엄한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 결국 8월 21일 사형 선고를 받았다. 김정득에게 내려진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득은) 국가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는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속에 숨어 살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의 속이고 유혹하였다. … 그 죄상을 생각해 보니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그리고 ‘각각 고향인 예산과 대흥으로 압송하여 참수하라.’는 명령이 덧붙여졌다. 김정득과 김 안드레아는 기쁜 얼굴로 고향을 향해 내려가다가 예산에서 헤어질 시간이 되자 “내일 정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라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튿날, 김정득이 대흥 읍내에서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8월 25일이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특별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투약·검진·돌봄)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가톨릭 교리



사랑의 질서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요즘 생긴 고민이 있습니다. 방학 중이라 약간의 시간이 남는데, 너무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야 할 일을 위해 에너지 비축도, 연구도 중요해. 나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이 우선이지. 나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2025년 초, 미국의 부통령 JD 뱅스는 미국이 이주민을 돌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그다음 이웃을 사랑하며, 이어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조국의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나머지 세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우구스티노의 ‘사랑의 질서’(ordo amoris)를 인용한 것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자렛 출신의 이민자로서 피신한 경험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민자의 고통을 예수님의 삶과 연결시켜 뱅스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노의 ‘사랑의 질서’는, 우리는 자연스레 가까운 이에게 먼저 책임을 느끼지만, 이는 결코 먼 사람을 배제하라는 논리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뱅스는 이를 국가주의적 자기 우선 논리로 단순화함으로써 모두를 사랑하되, 관계적 책임에 따르는 질서가 있다는 본래의 맥락을 배제하고 배타주의 논리로 축소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에 교황님은, “사랑은 동심원의 확장처럼 자기만족적 질서로 한정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경계를 넘어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강경한 이민 정책이 실행될 경우, 극심한 빈곤, 박해, 기후 변화 등으로 자국을 떠난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며, 특히 불법 이민자의 지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조치에는 옳게 형성된 양심이 반대해야 한다. 무력에 기반한 정책은 끝이 좋지 않은 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비판은 무작정 단순한 이민자 수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 접근과 엄정한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을 환대, 보호, 통합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이웃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는 타인은 내 이웃이 아닌 것처럼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족, 내 공동체만 우선이고 그것만으로 내 사랑은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루카 6,32)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사랑을 순위 매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차적으로,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랑의 질서는 어떠한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저도 서둘러 봉사를 하러 떠나야 하겠습니다.



그림 해설

빛과 소금 | 타서 없어지고, 녹아서 사라진 자리에 빛은 온기로 남고, 소금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 작아져야 했던 에고(ego)와 맛을 내기 위해 감내했던 비난을 품어 간직하면, 모래시계처럼 지금도 쉽 없이 움직이는 거룩한 사랑이 보입니다. 이 분열의 땅에서 저 평화의 영토로 안내한 선조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저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연습을 합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